

“연금사회주의 불식하려면 독립·전문성 갖춰야”

연기금 스튜어드십코드 토론회

‘연금사회주의’ 논란까지 제기 연기금 참여 확대 등 과제 남아 ‘5%룰’ 관련 근본적 검토 필요

지난달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되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연기금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했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과도한 경영권 침해, 나아가 ‘연금사회주의’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에 있어서 연금사회주의 우려를 해소하고 올바른 주주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연기금 확대, 주주제안제도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후 첫 주주총회 무엇이 달라졌나?’를 주제로 ‘연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연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희주 기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거수기 역할을 하고 새도보팅(그림자투표) 등 그림자 역할에 그쳤는데 여기에서 벗어나 주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관철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항공 사례와 관련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연금사회주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연금자본주의”라며 “다만 앞으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의사결정에 있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

조했다. 이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후 주주총회, 평가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송민경 한국지배구조원 선임연구원은 앞으로의 향후 과제로 관치 우려 완화, 연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확대, 주주총회 내실화, 주주제안제도 개선, 의결권 불통일 행사 규정 정비, 주식대량보유공시제도(5%룰) 개선 등을 꼽았다. 송 연구원은 “관치 우려를 생산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정치적 고려 없이 기금의 이익에만 충실하고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수탁자 책임 이행 문화와 관행을 정착시키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외에 다른 연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참여도 제안됐다. 현재는 사실상 국민연금만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연구원은 “연기금투자플, 주택도시기금, 고용·산재보험기금 등의 연기금은 모두 주간운용사와 하위운용사를 통해서 수탁자책임을 이행하고 있어 정부나 정치권 등의 부적절한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이들도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룰과 관련해선 회사에 심각한 위법행위가 발생했는데도 5%룰을 적용해 사실상 경영권을 보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5%룰은 특정 기업 지분을 5% 이상 가진 투자자가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규제다.

아울러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목소리를 담은 주주제안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송 연구원은 “주주제안 내용을 주종결의사항에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보다 다양한 사항에 대해 주주가 의사표시를 하고 결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

했다. 대한항공과 같은 사례는 의미 있는 일이지만 향후에도 반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도 나왔다.

신진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재계와 일부 정치권에서 우려하는 국민연금의 경영권 위협 혹은 연금사회주의는 과장된 면이 없잖아 있다”면서도 “대한항공과 같은 사회적 주목을 받는 사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고 향후 반복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민연금의 기금이 2057년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주권행사도 수익률 제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곽관훈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국내주식의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행사가 자산운용의 일부분”이라며 “따라서 주주권 행사도 자산운용의 기본원칙인 수익률 제고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곽 교수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수탁자책임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정치적 판단에 좌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기본원칙을 분명히 할 것을 강조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우리금융의 120년 역사와 미래 담았다



‘민족의 은행, 세계의 은행’ 전시관 개관

우리금융그룹은 2일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우리민족대표은행인 우리은행의 위상과 정체성을 담은 ‘민족의 은행, 세계의 은행’ 전시관 개관 행사를 가졌다.

전시관은 120년의 역사 속에서 국가와 민족을 감싸 안았던 큰 그릇을 모티브로 제작됐고, 힘차게 치솟는 상승 곡선을 통해 앞으로 우리금융그룹을 이끌어 갈 조화와 화합의 에너지를 표현했다.

전시관에는 민족금융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대한천일은행 창립청원서 및 인가서 등 대표 유물이 전시돼 있다. 창립청원서 및 인가서에는 1899년 고종황제의 윤허를 받아 ‘화폐융통(貨幣融通)’은 상무흥왕(商務興旺)의 본(本) 즉, ‘금융 지원을 원활하게 해 경제 발전에 기여



우리금융그룹은 2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본점에서 120년 역사와 미래를 담은 기념 전시관 ‘민족의 은행, 세계의 은행’을 개관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첫번째줄 왼쪽 일곱번째)이 박필준 우리은행 노조위원장(여덟째) 등 우리금융 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한다’란 창립 정신이 기록돼 있다. 또 전시관에서는 1899년 대한천일은행을 설립한 고종황제의 홀로그램과 1909년 건축돼 대한천일은행 본점으로 사용됐던 광통관(현재 우리은행 종로금융센터)의 홀로그램을 볼 수 있고, 26개국의 주요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소개와 1899년 창립 이후 2019년 우리금융지주 출범까지 이어지는 주요 역사들도 관람할 수 있다.

전시관은 우리은행 본점 로비에 설치돼 일반에게 공개되며, 그 밖의 다양한 은행역사와 관련된 유물들도 우리은행 본점 지하 1층에 위치한 은행사 박물관에서 관람할 수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은행장은 “120년 역사에 대한 자긍심, 사명감과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를 ‘민족의 은행, 세계의 은행’ 전시관을 통해 기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민영 기자 hong93@

정기주총 전자투표 이용사 전년比 15.3% ↑

SK하이닉스·카카오 등 564곳 이용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달 정기주총에서 전자투표·전자위임장서비스(K-e Vote)를 이용한 12월 결산법인이 전년(489개사) 대비 15.3%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SK하이닉스, 카카오 등 564개사가 전자투표를 이용했다.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발행주식수 대비 5.04%로 전년(3.90%) 대비 29.2% 증가했고 참여 주주 수는 10만6000여명으로 전년(3만6000여명) 대비 194%, 행사주식 수는 13억5600만주로 전년(8억8600만주) 대비 53% 늘었다.

예탁결제원의 주주총회특별지원반을 통해 집중 지원받은 회사의 전자투표행사율은 7.51%로, 미지원 회사(4.85%)보다 약 2.6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발행사와 주주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주주의 의결권행사 문화 형성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입주민이 즐기는 ‘그린매니저’ 시범 도입

LH 공공주택 조경부문 통합서비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 입주민에게 조경부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린매니저’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그린매니저는 조경·놀이시설 등 아파트 외부공간의 유지관리 점검과 입주민의 그린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주택 조경 관리자로, 입주민이 아파트에 살면서도 자연과 가까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됐다.

LH는 이번 사업을 위해 관련 경력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그린매니저로 선정했다. 이들은 앞으로 아파트 정원 가꾸기 등 입주민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생태체험교육을 시행하고 아파트 외부공간의 하자·유지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LH는 공공주택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조경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시범사업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그린매니저 서비스를 단계별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채신화 기자

“봄여행 사고 조심하세요”... 국토부, 전세버스 특별합동점검

국토교통부가 봄꽃축제, 체험학습 등 단체이용객이 집중되는봄 여행주간(4~5월)을 맞아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경찰청, 지자체, 교육부,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주요 관광지 등을 찾아 다니며 집중 점검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봄꽃구경, 학생단체 현

장 체험학습 등 봄철 나들이에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다. 교통안전에 필수적인 재생타이어 사용,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함께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및 소화기·비상망치 비치 적정여부 등을 살펴 본다.

특히 무자격 운전자, 음주운전 여부, 속도제한 준수 및 휴식시간보장과 같은 근로시간 준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건)는 지난 1991년 1만3429명, 2012년 5392명, 2014년 4762명, 2017년 4185명, 2018년 3781명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봄 행락철 사고건수는 2016년 2865건, 2017년 4305건, 2018년 4553건으로 나타나 이번 현장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채신화 기자 csh9101@